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례 10:15 오전 9:16 행 1:8
2025년 주님의교회 표어



499
2025.4.20.
부활절

오늘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할 줄 아노라 _ 이사야 50:7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2 | 하나님의 선교 특집 | 5 | 진중세례식 | 10 | 교사일기 / 함글함글 소감 |
| 3 | 특별새벽기도 설교요약 | 6-7 | LAMS 과정 소개 | 11 | 십자말씀이 |
| 4 | 무지개잔치 | 8-9 | 입교세례 소감 | 12 | 공동체 소식 |



2025 i.LAMS

4.16 ~ 6.18(수) 대예배실 7:20 PM
InterServe Life As Mission School

우리의 일상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삶의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선교 훈련 과정입니다.

대상자 주님의교회 누구나 **필독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IVP)
첫주 제외, 매주 수요일 총 8회

훈련내용 **수요일예배 중 강의**

주차	강의 주제	강사	비고
1주 4/16	제1과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송기태	과정 소개
2주 4/23	제3과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	송기태	
3주 4/30	제4과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 제5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	뷔제이	
4주 5/14	제6과 구속적 삶을 살도록 구속받은 백성 제7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대표하는 백성	뷔제이	
5주 5/21	제9과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과 구세주를 아는 백성	위나라	
6주 5/28	제10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공갈렘	
7주 6/11	제12과 보내고 보냄받은 백성	위나라	
8주 6/18	제13과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백성	공갈렘	수료식

강사



송기태 선교사



뷔제이 선교사



위나라 선교사



공갈렘 선교사

문의

정혜정 집사 (010-4159-8948)

주님의교회 InterServe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집 5

화목한 가정(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정)(요한복음 13장 34절)

2025년 함글함글은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호 '기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에 이어 이번 호에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화목한 가정'에 대해 나눕니다.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지는 가정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은 사랑의 학교이자 용서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기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지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식고 용서가 멀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져도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

성경적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가정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잘해서, 내 뜻대로 움직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가정은 **쉽게 용서하고 오래 참는** 가정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실수와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을 오래 담아두기보다 용서하고 참는 태도가 화목의 핵심입니다.

성경적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가정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가정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내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읽으려 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적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가정은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감정을 숨기기보다 진솔하게 나누는 문화를 가집니다. 사랑한다는 표현, 미안하다는 말, 감사의 인사를 자주 나누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성경적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가정은 **용서 이후에도 따뜻함이 이어지는** 가정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단지 실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따뜻한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용서하고 마음을 담아버리면 진정한 화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위한 실천 방안

사랑은 말로 표현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사랑해", "고마워", "너는 소중한해" 같은 짧은 말들이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매일 하루 한 번 이상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거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나누며 식사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거나 회피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다툼 후 먼저 "내가 미안

했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자녀 앞에서 부모가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가족 사랑의 날'을 만들어 함께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 간의 오해나 서운함을 편지로 나눠보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드리기를 실천해보면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는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부부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자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도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를 통해 용서와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침에 하루 말씀을 가족과 나누고 짧은 기도를 드리고 자녀와 함께 성경 속 사랑과 용서 이야기를 나누며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가정은 사랑의 가장 가까운 실천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갈등과 오해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위에 세워집니다.

그 사랑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실천한다면, 우리 가정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이웃과 공동체에도 진정한 화목과 사랑의 빛이 흘러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 베드로전서 4:8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하늘을 살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4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십자가와 사랑' 을 주제로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삼덕교회 원로이신 김태범 목사님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장신대 이상익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 17일(목)에 이상익 교수님께서 전해주시신 '하늘을 살다' 의 말씀을 요약하여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19-2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30-34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신자가 되자는 것 아닐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0장부터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삼일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자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과 신념 체계로 예수님의 말씀을 편의대로 해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더러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세상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소경을 보게 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사람들이 몰려와 자기의 겹옷을 벗어 레드카펫처럼 바닥에 깔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겹옷은 자기의 몸을 지키는 도구이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벗었다는 것은 왕의 입성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치들의 상을 엮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선언을 시대적인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혁신적이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남유다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바벨론과 바사 시대를 지나며 민족이 나뉘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장시치를 통해서 성전 앞을 비즈니스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삶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휘둘리고 매몰되는 인생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억하며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냅니다.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관계의 역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에 방화를 하고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때 베드로도 도망칠 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 잡혀서 십자가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수 없다고 하여 거꾸로 달려 순교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자꾸만 무너집니다. 우리의 현실과 처지와 상황 때문에 그저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러는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에 따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부활절을 앞두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꺾고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우리는 잇속을 챙기며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오늘에게 맡겨두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신자되기 원합니다’를 부릅니다. **어진원** 안수집사 / 함글함글

2025 전교인
무지개잔치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시간 - 무지개잔치

2025년 주님의교회 전교인 무지개잔치가 "미션 메신저스(Mission Messengers)"라는 주제로 오는 5월 6일(화, 대체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의교회 운동장(정신여중고 외)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지개잔치는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기쁨으로 나누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2025년 전교인 무지개잔치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밀리존에는 꿀벌바람개비, 페이스페인팅, 수박부채, 여름티셔츠백 만들기,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팔찌·키링·선캐처·풍선 만들기, 전통놀이 등 가족 단위의 참여형 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플레이존에는 바이킹, 에어바운스, 두더지게임, 농구대, 스틱잡기, 다람쥐통, 우주선, 해머치기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가득합니다.

푸드존에는 떡볶이, 순대, 찐빵, 핫바, 국밥 등 따뜻한 먹거리와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컵밥, 팝콘 등 다양한 간식이 제공되며, 푸드트럭(쌀핫도그, 타코야끼, 츄러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교육부스존에는 주님의교회 다음세대 유영청청과 가정사역원에서 마련한 신앙교육과 가정 회복에 대한 나눔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연존에서는 오후 1시부터 가스펠버블쇼가 진행되어 가족과 이웃 모두가 즐겁게 복음을 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해피존에서는 '캡슐을 열어 선물과 행복을 잡아라!'는 주제로 마련된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가 진행되어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더할 것입니다. 2025 전교인 무지개잔치는 단순한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삶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 웃음과 감동을 나누며, 서로를 기뻐하고 격려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위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며, 가정과 다음 세대, 이웃이 모두 함께 모여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축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부 총괄



2025 전교인 무지개잔치
미션 메신저스

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님의교회 운동장(정신여중고 외)

- 패밀리존** 꿀벌바람개비, 페이스페인팅, 수박부채, 여름티셔츠백, 전통놀이 컬러링,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팔찌·키링·선캐처·풍선
- 플레이존** 바이킹, 에어바운스, 두더지게임, 농구대, 스틱잡기, 다람쥐통, 우주선, 해머치기, 포토존
- 푸드존** 푸드트럭, 떡볶이, 순대, 찐빵, 핫바, 국밥, 커피 및 음료, 아이스크림, 컵밥, 팝콘
- 교육부스존** 주님의교회 다음세대와 가정사역
- 공연존** 가스펠버블쇼(오후 1:00)
- 해피존** 캡슐을 열어 선물과 행복을 잡아라!



2025 전교인 무지개잔치
정신여중·고등학교

가스펠 버블쇼
오후 1:00
가족과 이웃 모두가 즐겁게 복음으로 하나되는 은혜로운 시간에 초대합니다 ~!

먹거리
오전 10:00 ~ 오후 2:00
무료 및 유료쿠폰으로 이용 (유료쿠폰은 쿠폰판매소에서 구매)

- 푸드트럭 3,000원 (타코야끼, 쌀핫도그, 츄러스)
- 떡볶이 3,000원
- 순대 3,000원
- 찐빵 3,000원
- 핫바 3,000원
- 컵밥 3,000원
- 국밥 3,000원
- 아이스크림 1,000원
- 커피 및 음료 1,000원
- 팝콘, 소프트아이스크림 무료

패밀리존

- 1 전동기차
- 2 영아용키즈라이더
- 3 추억의 두더지(게임기)
- 4 해머치기(게임기)
- 5 농구게임(게임기)
- 6 기차챌린지(에어바운스)
- 7 바이킹
- 8 에어바운스
- 9 우주선
- 10 다람쥐통
- 11 유로번지
- 12 민속놀이
- 13 영아용 에어바운스(실내)
- 14 영아용 두더지잡기(실내)

플레이존

- 1 꿀벌바람개비 만들기
- 2 페이스페인팅
- 3 수박부채 만들기
- 4 여름티셔츠백 만들기
- 5 키링 만들기
- 6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가방 꾸미기)
- 7 세상에 하나뿐인 팔찌(팔찌 꾸미기)
- 8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키링 만들기)
- 9 세상에 하나뿐인 선캐처(선캐처 만들기)
- 10 세상에 하나뿐인 풍선(풍선 가져가기)

교육부스존

- 1 다음세대(유영청청) 및 가정사역원 사역안내

실터

- 1 실만한 물가(1층)
- 2 소예배실(1층)

군경선교부
진중세례식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이 땅이 되기를

지난 3월 29일, 5사단 9중대에서 열린 상승교회 진중세례식에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쌀쌀한 날씨였지만, 군인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열쇠부대에서의 남북 DMZ 지형 브리핑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를 적으로 여겨지며 대치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여호수아 6장). 지금 한반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화해와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과 장병들이 총과 포가 아닌 성령으로 무장하여 북쪽을 향해 나팔불고, 찬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쇠부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한 후 저희는 5사단 9중대 세례식이 있는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군부대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만난 군인들의 모습은 그러한 저의 염려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례식이 시작되기 전,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들은 신나게 울동하며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곡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손을 들고, 몸을 흔들며 울동을 하는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예배를 넘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순간 같아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목사님 설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웠습니다. 단순한 설교가 아닌 군인들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복음을 전해주시는 덕분에 많은 군인들이 더욱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설교를 들으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태복음 13장)가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어떤 마음은 돌밭과 같이 잠깐 믿다가 시험이 오면 넘어지며, 또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이 삶의 염려와 유혹 속에서 자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은 군인들은 군대라는 환경이 가시밭이나 돌밭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 군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단순히 국방의 의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좋은 땅에서 튼튼히 자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지나 자매 / 통일선교부



하나님의 선교 LAMS

하나님의 선교 LAMS(Life As Mission School)

주님의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 (크리스토퍼 라이트 저)를 기반으로 하여 LAMS(Life As Mission School)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를 주제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 구속적 삶을 살도록 구속받은 백성,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대표하는 백성,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과 구세주를 아는 백성,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과 구세주를 아는 백성,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보내고 보냄받은 백성,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백성에 대해 배우고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LAMS과정 교재에 있는 과정 소개를 함글함글을 통해 다시 알려드립니다.

LAMS의 목적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가운데 자기 삶의 소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LAMS의 의미

- **L&M(Life And Mission)** - 미션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며 삶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에 물든 삶을 살기 쉽습니다.
- **LFM(Life For Mission)** - BAM(Business As Mission)이 비즈니스를 선교의 하나의 수단, 혹은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삶의 선교 도구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생한 전형적인 선교 개념이 '가든지 보내든지'입니다. 이런 개념은 선교를 이원론적인 역할로 보게 하고 또한 삶의 현장을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에서 성경적 윤리가 부족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 **LAM(Life As Mission)** - BAM(Business As Mission)이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선교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BAM이 비즈니스 과정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LAM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L&M에서 시작해서, LFM로 그리고 점점 더 LAM의 개념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AMS 사역의 필요에 대한 배경

- **선교적 존재와 선교 사역의 문제** - 한국 교회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8년 이후에 한국 선교는 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선교에 대한 이미지와 개념이 주로 '해외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성도들에게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참여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선교 30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해 반추해 볼 때 우리의 선교가 선교 사역(to do)에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선교적 존재(to be)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LAMS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라는 부제에 대한 질문을 성경 신학으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 **성도들의 성경적 세계관 문제** - 한국 성도들은 그동안 선교를 주로 선교 사들에 의해, 선교 신학적이고, 상황화된 선교를 중심으로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선교사나 선교 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접근이지만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는 관련성이 적게 여겨졌습니다. 성도들을 선교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크리스토퍼 라이트 저)는 매우 적합한

책이라 여겨져 이 책을 통하여 선교적 성경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접근은 성경의 선교적 관점을 통하여 기존 선교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고 무엇이 더 바람직한 하나님의 선교, 혹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관점을 갖게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 **선교의 보편성 문제** - 그동안 우리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선교사 후원, 단기선교, 혹은 몇몇 선교 행사 등등에 국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역적, 신분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양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동에 대한 선교 영역적 구분, 혹은 선교 신분적 구분은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데 제한적 요소를 제공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교에 참여해야 하며,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제, 즉 '선교로서의 삶'(Life As Mission)에 걸맞은 선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LAMS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LAMS 과정의 세 가지 경험

-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경험하기** - 선교는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MS를 통하여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선교적 공동체의 신비 경험하기** -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며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합니다. LAMS 과정에서 함께 하는 소그룹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걸음을 함께 걷는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 **현재와 미래를 향한 자신의 사명 발견하기** -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소명과 보내심은 개인적으로 발견하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 은사론이 믿습니다. LAMS 과정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통하여 한 분 한 분들이 주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독특한 보내심의 현상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LAMS의 학습 철학

- **공동체적** - 자발적으로 함께 하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훌륭하고 감동적인 강의와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요소들이 소그룹



에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 **성찰적** -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함으로 배웁니다. 학습은 감동과 성찰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전인격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험적** - 실제 삶과 세상 속에서의 실천 가운데 선교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 가정에서 적용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LAMS의 구성 요소들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읽기 - LAMS는 매주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한 과 혹은 두 과씩 읽어 나가면서 해당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LAMS는 강

사의 강의보다는 참여자들이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 **강의 듣기** - 매주 모임 때마다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하여 전체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으실 때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강의 때나, 소그룹 모임에서도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 **소그룹 나눔** - 이 시간은 전체 LAMS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시간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 배우고 격려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LAMS Plan** - 마지막 주에는 그동안 LAMS에서 배운 내용과 실천 계획에 대해 공동체 앞에서 한 분씩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LAMS

LAMS 과정 즐겁고 풍성하게 참여하기

열린 마음 열린 태도

- **LAMS, 하나님의 선물** -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8주 동안의 LAMS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귀한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과정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선교에 대한 선입관 내려 놓기** -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대부분 너무도 무겁고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경험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규정하기 쉽습니다. 그런 인식을 8주간 동안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가르쳐 주시길 기도하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 **성령께서 행하실 일 기대하기** -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는 일은 성경을 하나님 선교의 관점으로 보는 관점 훈련입니다. 이런 일은 스터디나 강의를 듣는 것 정도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셨던 쥘의 가르침이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번 과정을 인도해 주시는 믿음과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읽기

- **베뢰아 성도들처럼** - 이 책은 결코 가볍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주로 성경을 근거로 각 주제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베뢰아 성도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므로”(행 17:11).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도 긋고, 생각이 촉발되면 책에 메모도 하면서 책과 교감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과 의문으로** - 우리의 배움은 주로 스스로의 질문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그러한가? 왜 그렇지? 책을 읽을 때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으로 남겨 두었다가 강의 때나 소그룹 모임 때에 나눔으로 자신과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 LAMS는 함께 배움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든지 의문이 있는 내용이든지 함께 나누고 대화함으로 배우는 공동체를 우리어가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참여하기

- **입체적 이해 도우미** -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미 하나님 선교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책에서 어렵게 여겨지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사들이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강의는 책 내용을 좀 더 입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재구성해서 나누기 때문에 강의에 잘 참여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강의에서 책 모든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책을 미리 읽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해 경험하기** - 강의의 목적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조각 조각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줌으로 각 과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생각해 본 후에 참여할수록 이런 경험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하기 - 책의 내용이나 강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자와 강사와 참석하는 성도들 사이에 기본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그런 갭을 메워주고 참석자들에게 그 이슈에 대해 더 폭넓고 창의적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질문에 참여하시길 격려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기

- **함께 배워가는 모임** - LAMS는 소그룹 모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 시간보다 소그룹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합니다. 우리의 배움은 주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대부분 제자들의 질문을 대화 형식으로 다루셨습니다.
- **대화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 성령님은 대그룹 예배든, 소그룹 모임이든 두세 사람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소그룹에서 누가 이야기하든, 중요하게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의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는 모임** -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솔직하고 경험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성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더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요소는 우리의 신앙과 선교의 본질이 친교인 것을 생각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더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세례입교예식
소감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하며 유아세례를 거쳐 이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찬양대를 하며 본격적으로 교회와 점차 가까운 생활을 시작했고 6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생각되는 저의 오랜 기도를 들어주심을 경험한 뒤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예배팀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코로나 기간을 겪으며 조금은 열정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재수를 시작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1년을 보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기도가 술술 나오고 매일 필사와 기도를 드리며 힘든 시간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며 모든 것을 고백하며 신앙의 깊이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힘든 순간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순간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소통하는 자녀가 되고자 입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입교 교육을 받으며 새롭게 알게 된 것

늘 설교 말씀과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로 어렵פות이 알고 있던 성경 말씀과 기독교적 지식을 세례교육을 통해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세례의 의미와 필요성, 구원받음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저희에게 구원을 선사하셨고,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이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입교 교육 전후 믿음의 변화

너무 어릴 적 유아세례를 받아 세례전후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번 입교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선포한다는 것에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동안의 생각과 달리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과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저의 삶의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게 하고 체험받기를 원하게 하는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과 다짐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제가 힘들고 의지하고 싶고 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며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욕심을 부리기도,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투정부리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고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기꺼이 그 계획을 따라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노력하며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과 사랑을 가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새말씀 중 위의 생각을 담고 있는 로마서 8:28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태인 청년 / 청년부

세례입교예식
소감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

중학교 시절 친구 따라 다녔던 시절을 빼면 교회는 오랜 시간 제 삶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데이트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예배에 참석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새로운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장인어른과 장모님 및 처가 식구들이 보여주시는 가정의 모습은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기도하며 신앙이 중심이 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건강한지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며 새롭게 알게 된 것

3주의 세례교육은 제게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세례의 의미,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쉽고도 깊이 있게 배우며, 그동안 몰랐던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큰 의미이며, 신앙의 출발선이고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가야 한다”는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같은 설렘을 지닌 채 매주

교육을 들으며, 점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앞두고 느끼는 변화

세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제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에 참여해도 그저 관람자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 중에 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남편,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신앙이 이제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과 다짐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초신자에게도 따뜻하고 다정한 교회가 되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 또한 누군가에게 신앙의 문턱을 낮춰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배우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주호 성도 / 8교구

세례입교예식
소감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입교를 하게 된 계기

저는 올해 고등부 1학년으로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을 따라 막연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입교 교육을 통해 깨달은 점

이번 입교 교육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평생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

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입교를 하면서 다짐

저는 이번 입교 이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어떠한 유혹이 저에게 찾아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 이끌어주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승리 학생(고1) / 고등부

세례입교예식
소감문

삶의 주인되신 예수님

세례를 받게 된 계기

제가 드리는 중등부 예배에는 항상 광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고에는 매주 다들 주제가 올라오는데요, 어느 날 세례/입교 신청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던 저로서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며 느낀 점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게 된 이 순간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고백하는 이 세례는 제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제 모습을 그대로 좋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서 다짐

이번 세례를 통해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면서 교제하는 것이 앞으로 제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종윤 학생(중2) / 중등부

세례와 입교는 신앙의 여정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세우는 중요한 신앙 의식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표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나타내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과 새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신비롭고도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입교는 이미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서약하는 의식입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성장하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온전한 일원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입교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이며, 그리스도와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책임 있게 살아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세례와 입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단순히 하나의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약속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변함없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흔들리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세례를 통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입교를 통해 믿음을 스스로 고백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입교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작품입니다.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이 붙든 세례의 약속과 입교의 다짐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오늘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진원 안수집사 / 함줄함울

교사일기
아기부

아기의 삶에서 작은 씨앗이 될 아기부

아기부는 주일 11시에 15개월 이하의 아기와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서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부서를 섬겨 왔지만 이런 어린 아기천사들을 위한 부서가 있는 줄 몰랐다. 어느 권사님께서 아기부를 같이 섬겨보지 않겠냐고 여러 번 권면을 해 왔지만 소중하고 귀중한 아기들을 서둘러,혹시나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하며 여러 번 거절했었는데 아기부 예배를 참관해 보라고 말씀하시어서 그러면 한번 가보겠다고 하면서 아기부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처음 참관했던 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방에서 일찍부터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며, 간식을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권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환한 미소가 나를 녹게 했다. 10시 40분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미리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11시가 되기 전부터 한 가정, 한 가정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11시가 되면 기타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기와 부모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아기 눈높이에 맞춘 성경 이야기와 인형극 등으로 너무나 잘 준비하신 전도사님의 그 날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가 마치면 반모임을 하며 한 주간 살면서 느낀 여러 가지 이야기나 아기 키우며 느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눈다.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휏 지나간다.

가까운 곳에 살고있는 가정도 있지만 멀리서 오는 가정도 꽤 많았다. 그 아침에 11시까지 오기 위해 아이를 씻기고 준비하고 왔을 아기 부

모님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러 오는 아기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전해져서 뭉클해지며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다. 아울러 아기부의 한 시간을 위해 너무나 잘 준비하신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섬김이 감동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들어온 아기부에서 어느새 6개월째 섬기고 있다. 처음 봤을 때 엄마 품에 누워만 있던 아기가 어느새 기어 다니고, 기어 다니던 아기는 뛰어다닌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기들을 보면 내 아기 마냥 기쁘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커가는 만큼 이 아기부에서의 예배가 아기의 삶에서 작은 씨앗이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내일은 또 주일이다. 일주일 사이 아기들이 또 얼마나 밝게 자라고 컸을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 ^^

은정아 집사 / 아기부



함줄함울 감상평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신앙생활

교회 신문 함줄함울 498호를 읽으며 ‘기도하는 가정’과 ‘영어 예배 사역’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앙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가정’에 대한 글은 가정의 신앙이 단순히 개개인의 믿음을 넘어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가정이 영적으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도가 단순한 습관이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이를 통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한, ‘영어 예배 사역’에 대한 소개 글도 깊은 흥미를 끌었습니다. 교회가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앙은 국적과 언어를 초월하는 가치이지만, 현실적으로 언어가 다르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 예배 사역은 신앙을 나누고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와 친교 모임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영어 예배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함께 나눌 때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성도들이 교회에서 더욱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 역시 이러한 사역에 참여하면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함줄함울 498호를 읽으며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은,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개개인의 신앙이 모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며, 영어 예배 사역 또한 신앙을 나누고 확장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두 주제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국선호 성도 / 8교구

2

2025.3.20.주일

신앙일기

함줄함울 498호를 읽으며 ‘기도하는 가정’과 ‘영어 예배 사역’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앙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3.20.주일

신앙일기

함줄함울 498호를 읽으며 ‘기도하는 가정’과 ‘영어 예배 사역’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앙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2025.3.20.주일

신앙일기

함줄함울 498호를 읽으며 ‘기도하는 가정’과 ‘영어 예배 사역’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앙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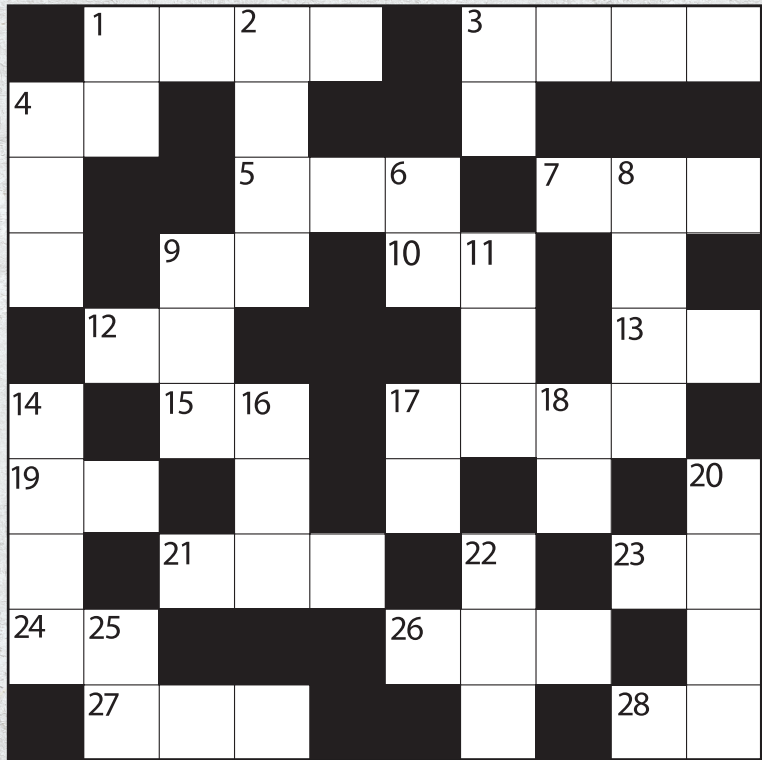
2025.3.20.주일

신앙일기

함줄함울 498호를 읽으며 ‘기도하는 가정’과 ‘영어 예배 사역’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앙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가정과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마가복음 편

이번 호는 신약의 두 번째 권인 <마가복음> 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에 속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가로 힌트

- 1. 성경 구약에 나오는 에그론의 신. 신약에서는 사탄이나 귀신들의 왕이라고도 본다. (막 3:22)
- 3. 신의 성스러움을 모독하는 것. 불경스러운 행위, 모욕하는 행위, 외경의 마음이 부족한 것을 포함한다. (막 14:64)
- 4. 가롯 출신 예수님의 제자. 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았었으며, 예수님을 은전 30개에 적의 손에 넘겼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을 매어 죽었다. (막 3:19)
- 5. 헬몬산에서 기원하여 사해까지 흐르는 강. 예수님이 이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막 1:5)
- 7. 예수님의 첫번째 제자. 가버나움의 어부였으며 형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막 1:16)
- 9. 어떤 사람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한계. 이 한계를 넘어가면 '월권' 이라고 한다. (막 13:34)
- 10.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부활한 후 이를 믿지 못해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졌다. (막 3:18)
- 12.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힘,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한 힘의 뜻으로 쓰인다. (막 5:30)
- 13. 한센병의 다른 말. 만성 감염병으로 신약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알려졌다. (막 1:42)
- 15. 어떤 인물의 후손. 예수님은 다윗의 이 것이다. (막 10:47)
- 17.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별명. '우리의 아들' 이라는 뜻이다. (막 3:17)
- 19.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는 집단. 성경에서는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무형의 공간을 의미한다. (막 4:26)
- 21. 지붕과 천정 사이에 조성된 작은 방. 성경 시대 유대 지역에서는 평평한 지붕 위에 만들어져 계단이나 사다리로 올라가는 비교적 넓은 방을 의미했다. (막 14:15)
- 23. 성경 시대 세금 징수원.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사람들의 원성을 받았으나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막 2:15)
- 24. 성경에서 영적인 완전함을 이룬 상태. 하나님께 합당한 상태, 또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막 5:15)
- 26.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사셨던 마을. 갈릴리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었다. (막 1:9)
- 27. 어떻게 해도, 아무리 해보아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뜻의 부사이다. (막 2:12)
- 28.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막 2:17)

세로 힌트

- 1.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물로 덮인 지역. 대부분의 이것은 물이 짜지만, 성경에서 이것으로 표현되는 갈릴리 호수는 민물호이다. (막 1:16)
- 2.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선지자. 낙타털 옷을 입고 메두기와 석청을 먹었다. (막 6:14)
- 3. 갓 결혼한 남자. 신부에 대응하는 말이다. (막 2:19)
- 4. 유대의 절기. 출애굽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건너간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막 14:1)
- 6.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탈하는 도둑. 단순히 금품을 훔치는 도둑보다 죄의 정도가 높다. (막 11:17)
- 8.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가려져 있던 것이 나타나게. (막 1:45)
- 9.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집단에서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막 13:9)
- 11.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의 부인으로 동정녀로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 (막 6:3)
- 14. 신약 시대의 은전. 보통 일꾼들의 하루치 품삷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 (막 12:15)
- 16. 사람 손의 끝이 갈라져 형성된 5개의 가락. 가락마다 이름이 다르다. (막 7:33)
- 17. 가치가 있는 귀한 물건. 보통 '금은○○' 와 같은 식으로 쓰인다. (막 10:21)
- 18. '너'의 복수형. '우리'에 대응되는 말이다. (막 1:3)
- 20. 신약 시대 유대의 분파 중 하나. 정통 유대주의자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율법학자나 제사장이 많았다. (막 2:16)
- 22. 구약 시대의 선지자. '여호와와 구원' 이라는 뜻이다. (막 1:2)
- 25.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막 3:14)

광고

물품보관소 안내

1층 설만한물가에 물품보관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주중이나 주일, 교우들에게 물건을 전달하거나 보관하려 하실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일정

- 4/20(주일) : 부활주일
- 4/23(수) : 1/4분기 제직회
- 4/27(주일) : 장애인 주일
- 5/4(주일) : 어린이 주일, 성찬 주일
- 5/6(화) : 무지개 잔치
- 5/7(수) : 교구 연합 수요기도회(1교구)
- 5/10(토) :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 5/11(주일) : 아버지 주일, 정기 당회
- 5/17(토) : 양육클래스 종강

알립니다

- 2025년 전교인 무지개잔치
일시 : 5/6(화, 대체휴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주제 : 미션 메신저스(Mission Messengers)
- 하나님의 선교 LAMS과정
기간 : 4/16~6/18(매주 수) (5, 6월 첫주 제외)
- 국내선교(협력교회)를 위한 물품 모음
일시 : 4/20, 27(주일) 오전 8시 ~ 오후 2시
장소 : 1층 로비 안내데스크
물품 : 옷, 그릇, 생활용품, 장난감 등
- 유아세례교육
신청 : 4/20(주일)까지
교육 : 4/27(주일), 5/4(주일) 오후 2시 30분(온라인)
유아세례예식 : 5/11(주일) 3부 예배시
문의 : 옹관순 안수집사(010.3351.9471)

모집합니다

- 주방봉사자(마무리팀)
시간 : 주일 12시~2시
문의 : 서정하 장로(010.9554.9715)
- 주차안내부원
시간 : 1부(2명), 2부(3명), 3부(3명)
문의 :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2025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 등 종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2025.3.9(주일)
 - 당회의 공천 투표 : 2025.4.13(주일)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2025.5.11(주일), 2차선거 2025.5.18(주일)
- 항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년도말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 기준)	자질 및 성품	세례학당 이수여부 (선거년도말 기준)
장로	7년	10년	만40세~65세 미만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안수집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
권사	5년	5년	만30세~70세 미만	교우들의 신앙을 받고 전할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는 자	○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 추진투표에 참여하는 종직 직분자 :
 - 항존직(목회장, 사임장로, 시무·온회 안수집사, 시무·온회권사, 협동장로)
 - 개척부서 부서장
 - 공천투표 :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규칙에 따른 등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규칙에 따른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 피택(선출)기준
 - 장로 : 총 유류 투표자의 2/3 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 총 유류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2025년 1월 12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위원회

가정사역원

2025 상반기 교육일정

꿈꾸는 3막 3.6-4.24(목) 오전 10:00 초등부실 매주 목, 8주 4만원 박종현, 김은선 목사	마더와이즈 3.4-4.29(토) 오전 10:00 초등부실 매주 화, 9주 6만원 이영경 목사	해피맘스쿨 4.4-5.23(토) 오후 1:00 zoom 매주 금, 8주 회비없음 김은선 목사
결혼예비학교 6.8-6.22(주일) 오후 3:00 초등부실 매주 일, 3주 4만원 이영경 전도사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2/8, 3/15, 5/10, 6/14(토) 오전 5:20 강요한 전도사	아름다운 부모학교 4.5-5.24(토) 오전 9:30 4층 대회의실 매주 토, 8주 3만원 배운환 목사, 이영선 전도사

* 가정예배학교, 파더와이즈 : 한번기 실시

498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국선호 성도(8교구), 진주현 집사(8교구), 정현정 집사(5교구), 김희정 성도(8교구)

십자말풀이 정답 또는 '함글함글' 기사에 대한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